

발효우주여행 VR 체험공간 설치

순창군, 5억원 투입·3월 중 완공... 전통장류별 발효과정 체험

순창군이 발효소스토굴에 우주여행을 통한 전통장류별 발효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VR(가상현실)체험관을 설치해 순창의 관광 핫 플레이스로 확실히 자리 매김 할 전망이다.

이번 가상현실 체험관은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3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패스트푸드에 빠져 멸망해 가는 지구 구하기 위해 순창의 캐릭터인 짜장, 광이 등이 우주를 여행하면서 아이튠을 찾는 게임형 어드벤처로 관광객이 직접 우주 공간에서 있으면서 발효 과정을 가상현실로 실감있게 체험할 수 있다.



순창군이 발효소스토굴에 우주여행을 통한 전통장류별 발효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VR(가상현실)체험관을 설치해 순창의 관광 핫 플레이스로 확실히 자리 매김 할 전망이다.

기존 미디어아트 공간 옆 공간에 HMD(Head Up Mounted), 4D 어트랙션 시뮬레이터 등을 구축하며 가족단위 관광객 8인이 한번에 체험 가능한 규모로 만들어 진다.

특히 HMD는 시선추적 기술을 위한 적외선 센서를 장착하고 각종 동작인식 관련 센서를 내장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몰입적인 가상환경을 재현할 수 있다.

군은 발효소스토굴을 찾는 관광객의 유형이 증장년층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로 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콘텐츠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 했으며 기존 미디어아트 체험 공간과 시너지 효과로 발효소스

토굴의 관광기능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디어아트 체험공간은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미디어아트 공간 화면에 생성되어 발효과정을 거친 다음 전통장이되는 과정을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의 인기를 끌고 있다.

발효소스 토굴은 전통장류의 저장과 세척소스의 전시기능에 미디어 체험관, 발효커피 판매 공간 등 관광기능

이 더해지면서 지난해 5만 5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가상현실 체험시설 설치에 발효소스 토굴의 관광기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전통장에 대해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면서 "본격적인 봄철 관광시즌 이전 사업을 완료해 순창의 새로운 관광명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주열 열사 동상 건립 착수

남원시, 숭고한 정신 계승·민주혁명 정신 기려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해 고위한 목숨을 바쳐 4.19 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던 김주열 열사의 동상이 열사의 고향인 남원시 금지면에 건립된다.

남원시는 금지면에 위치한 김주열 열사의 묘역 주변에 추모공원 조성해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산화하신 김주열 열사를 추모하고, 그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민



주주의 산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공원 내에 4.19혁명 58주년 기념식에 맞춰 김주열 열사의 동상을 건립해 이 땅의 자유, 민주, 정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열사의 꺼지지 않는 민주혁명 정신을 기리며 깊은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자치단 의미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참된 민주화를 열망했던 열사의 신념과 의지를 담은 동상 설치로, 4.19정신의 계승과 함께 민주주의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무허가 축사 후속조치 나서

순창군이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발표에 따라 단계별 세부 운영 방안과 간소화된 신청서 작성방법을 읍면과 축종별 협회에 공문을 통해 발송하기로 하는 등 발 빠른 후속조치에 나섰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 이행기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지침'을 22일 발표함에 따른 조치다. 당초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금지 및 폐쇄명령과 가축사육제한지역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가 3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이행기간을 연장 할 수 있게 됐다.

자세한 문외는 순창군청 환경수도과 전화 650-1713번이나 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풍산 자율방재단, 산불방지 소각

순창군 풍산면 자율방재단(단장 김일열)원 50여명은 26일 불철 산불예방을 위해 상죽마을 등 20여개 마을주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산근접지등 논·밭두렁을 대상으로 소각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방재활동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전에 논·밭두렁 등 농산물폐기물을 태우다가 대형산불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대형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방재단원과 산불진화대원, 공무원 등 50여명이 총동원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택시감차보상금 200만원 상향 조정

법인택시 2000만원·개인택시 5200만원

임실군이 택시감차보상금을 200만원 상향 조정했다.

군은 택시감차위원회 박진두 부군수 주재로 제3차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법인택시 감차보상금을 185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개인택시는 50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연도별 감차 대수는 2018년 3대(법인 1, 개인 2), 2019년 2대(법인·개인)로 총 5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인근 지자체의 감차보상금 수준과 최근 2년간 지역 내 택시면허

실거래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지급하는 보상금은 택시면허 반납에 따른 보상금으로 차량은 감차대상자가 직접 처분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사람(상속된 경우 상속자)으로 면허에 압류 등의 권리 행사 제약이 없어야 한다.

감차 계획대수를 초과해 신청이 들어오면 개인택시는 나이, 관내 거주기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올해 계획된 3대 감차보상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보상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택시가 매매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택시면허 양도양수가 일시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택시 업계의 어려운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과잉 공급된 택시 감차를 위해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임실군은 택시 과잉공급 문제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법인·개인택시 60대 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대(법인 8, 개인 2)를 감차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전통시장 다기능 주차장 준공

지역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선도모델이 될 임실전통시장 다기능주차장이 준공됐다.

군은 26일 임실전통시장 다기능주차장 다목적 광장에서 심 민 군수와 기관·사회단체장, 임실전통시장 상인회원,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및 다기능주차장 준공식'을 가졌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ICT를 특화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이동 먹거리매대 운영, 시장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2015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형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다기능주차장은 규모 2,057㎡의 2층 건물로 70여대의 주차가 가능해 시장 이용 고객들의 교통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임실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고객들은 인근 도심 주차장과 주변도로 혼잡으로 인해 시장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70여대의 차를 추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고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날이나 행사 시에는 5일장과 문화공연을 병행하는 등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심 민 군수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완료와 함께 다기능주차장이 준공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올해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비가림시설인 아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임실전통시장이 더욱더 새롭게 변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보건소 지카바이러스 주의

남원보건소(소장 최태성)는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외 여행 계획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을 확인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 환자 발생이 산발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건기(1~6월)에 접어들면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지역에서 산발적 감염사례가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모기에 의한 감염 외에도 성접촉, 수혈, 모자간 수직감염, 실명실 등을 통해서도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소두증 및 갈라바-바레즈후군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주요 증상은 반점구진성 발진이며,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발열, 두통 등이 동반될 수 있다고 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